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3 2019

VOL. 273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10e | S10 | S10+



GalaxyLaunchPack.com



Pro-Grade
Camera



Cinematic
Infinity Display



Wireless
Power Share



Ultrasonic
Fingerprint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Image simulated. The "S10" on the screen is graphic element for Galaxy S10e, S10, and S10+.

TRANSFER FASTER

go korean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SAINT JAMES

SALE
UP TO **80%**

SAINT JAMES FACTORY OUTLET
GRAND OPENING

FACTORY OUTLET



업소용

업소용뚝배기

COOKB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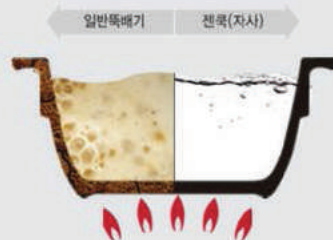


IDR 45,000 ~ IDR 65,000

찾아오시는길
Cikupa - Tangerang



아직도 세제먹는 뚝배기를 쓰시나요?



- 수분흡수율 및 납성분 제로
- 천연광물 및 무연유약
- 탁월한 내구성
- 원적외선 방출

젠룩은 세제흡수 걱정 NO!
Healthy Cooker

고순도로 정제한 천연광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1250°C 이상의 고온으로 2회 이상 소성 결정화되어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제 및 수분흡수가 없어 세균번식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문의 : (021) 5010-4557/58/59

saintjamestableware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민족의 트라우마, 상처를

근성과 의지로 극복한 3.1운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민족사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의미부여와

많은 목숨과 희생을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 참여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붙잡는 퇴보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어떤 사건을 규정하는 관점도

갈등이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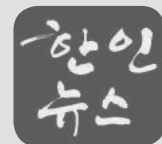
유연하게 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망가진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위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를

우리네 역사에서 이미 배운만큼

지금의 불편함을 피해야 하는 습관을 버리고

긴 안목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8 신성철 칼럼 - 가짜뉴스 폭색 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운동
- 14 이해창 경제칼럼 -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18 건강칼럼 -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 2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17
- 26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30 경제뉴스 콕! 짚어보기 <편집국>
- 32 자카르타 맛집 탐방 <주윤지>
- 34 3월의 행복 에세이 <우병기>
- 38 이방인 법정 <김소웅>
- 41 이슬람 경제의 출현과 한국인의 반응
<한-인니 문화연구원>
- 42 나바수 <민선희>
- 47 MRT JAKARTA <한영진>
- 48 기업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3부 <이순형>
- 52 인도네시아 토지법 (271) <이승민>
- 54 좋은 글 <박민영>
- 63 Pancoran 사람들 <편집국>
- 67 생활정보

한인사회 이모저모

- 2019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 10
- 2019 KOREAN BUSINESS DIALOGUE 13
- 3.1운동 100주년 행사안내 17
- 2019 설날체험행사 46
-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51
- <적도의 노래> 출판기념회 59
- 드라마 OST로 배우는 K-POP 행사 60



고궁의 봄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 @dqdoodle]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운동

2019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난타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17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제2차 TV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기 싸움을 이어가 앞으로 남은 3차례 TV토론회는 물론 두 후보 지지자 간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자카르타 시내 술탄 호텔에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 식량, 사회기반시설, 천연자원, 환경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꼬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총재가 1대1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뿌라보위 총재가 동부갈리만만주에 22만 헥타르와 아체 주에 12만 헥타르 등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대규모 토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유지를 비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뿌라보위 총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외국인이 토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뿌라보위 총재의 답변 후 중간 광고가 나가는 동안, 카메라가 꺼진 토론장에서는 두 후보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여 싸우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슈가 된 토지 중 일부는 2004년 당시 유습 칼라 부통령이 허가를 해주었으며, 칼라 부통령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외국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 보다 내국인이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인 뿌라보위

총재의 엄청난 부동산 자산이 드러나면서 수하르토 집권기를 일컫는 신질서시대(Orde Baru)의 잔재와 적은 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국가의 권력과 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과두정치가 유지되고 있음이 폭로돼, 서민층의 표심을 얻으려던 뿌라보위 진영은 치명타를 입었다.

또 조꼬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유니콘’을 성장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질문한 것이었다. 그러나 뿌라보위 총재는 갑자기 등장한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듯 “유니콘이 뭐냐? 그 온라인의 것들을 말하는 거냐”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꼬위 대통령 지지자들은 뿌라보위 총재가 기본 시사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속히 이 슈화했다.

뿌라보위 총재는 조꼬위 정부의 비효율에 초점을 맞춰 공격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비효율과 낭비가 심각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래 19만1천km에 달하는 오지마을 도로와 고속도로, 공항, 항만을 건설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한 것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워 선방하는 등 두 번째 토론에서는 다소 우세한 분위기를 보였다.

제2차 TV대선토론 이후, 양 진영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 졌다. 수하르토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1998년 5월 당시 뿌라보위 육군



Pasangan Calon Presiden disela acara Deklarasi Kampanye Damai di halaman Tugu Monumen Nasional, Jakarta

전략사령부(Kostrad) 사령관의 참모였던 기쁠란 제인 예비역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란 또 당시 통합군사령관이 5월 사태의 주모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란또 현 정치법률인권 조정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합동진상조사팀(TGPF)이 이미 조사를 끝냈다”며, 뿌라보워 총재가 5월 소요사태의 배후임을 시사했다. 5월 소요사태와 관련 이슈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 조꼬위와 뿌라보워가 격돌할 때도 드러난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뿌라보워는 당시 대선 직전에 치명타를 입고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횡횡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6천만명의 회원들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라뿔올라마(NU) 총회에서 “오는 4월 17일 대선과 총선이 열린다”며 NU 회원들에게 가짜뉴스와 싸워줄 것으로 당부했다. 조꼬위 대통령에 따르면, 오는 4월 대선에서 조꼬위 대통령을 찍으면, 이슬람사원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이 중단되고 동성간 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흑색선거운동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NU는 먼저 조꼬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반면, 인도네시아 2위 이슬람단체인 무함마디야는 최근 정치적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조꼬위를 지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일 동부자바 주 수라바야에서 대중연설을 통해 흑색선거운을 비판했다.

그는 “끊임없이 중상과 죄악, 헛소문을 뿌려대는 러시아식 선전전을 준비해 온 선거운동팀이 있다”고 말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명백히 유일한 상대 후보인 뿌라보워 총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살리고 있는 조꼬위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오는 3월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하철인 자카르타 도시철도(MRT)와 자카르타 경전철(LRT) 등 개통함으로써 인프라 개발의 치적과 서민행보를 이어가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마룹 아민은 이슬람 집회를 통해 무슬림 표발을 일구고 있다. 추격을 벌이고 있는 뿌라보워 총재는 현 정부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성장과 진전을 보이지 못한 부패척결 등 약점을 공략하고 있으며, 그의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는 젊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내세워 젊은 층과 여성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뿌라보워 총재보다 9.2~20.1%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상당한 격차를 벌이며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2억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은 앞으로 남은 3차례 TV토론을 주목할 것이다. 두 진영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난타전이 예상된다.

2019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

박재한 한인회수석부회장 제 6대 한인회장에 당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2월 26일, 세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시티) 호텔에서 한인회의 명예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양영연 한인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사회는 국민의례, 2018년 결산보고 의안과 한인회 사업보고 의안을 심의하고 소속단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한 단계 도약하는 한인회를 위해 용기를 내신 입후보자 세분께도 박수를 보낸다”며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주는 한인회로 이끌

수장을 뽑는 선택이 미래의 한인회에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걸음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제6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로 이어졌다.

투표와 개표절차 설명, 입후보자 기조연설,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낙선자 인사, 당선자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18명 가운데 92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조규철 후보가 30표, 전민식 후보가 23표, 박재한 후보가 39표를 얻었다. 투표결과에 따라 다득표 한 박재한 한인회수석부회장이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박재한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연회비 30만 루피아의 개인회원을 적극적인 홍보로 늘려나가 보다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함

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면서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할 것”과 “중요한 한인사회 관련 사안들을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질차적 정당성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한 당선자는 “더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마중물



이 되어 다음 세대를 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인회장이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의 자리와 역할이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한 제 6대 한인회장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9 KOREAN BUSINESS DIALOGUE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은 지난 2월 27일 ‘Together We Grow’를 주제로 연례행사 중 하나인 ‘2019 KOREAN BUSINESS DIALOGUE’를 물리아 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정부 관계자 및 한인기업인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참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동 행사는 코참 송창근 회장의 코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각 부처 고위 관료 참석에 대한 감사 환영사로 이어졌으며, 그 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2018년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총 무역액은 약 186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12.4%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신 남방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등 4차 산업혁명 비전 실현을 위해 꾸준히 인도네시아를 도울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어 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은 ‘Industry Collaboration and Opportunity’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기업가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에 대한 꾸준한 투자 증가를 장려했다. Muhammad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고용의 장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conomic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의 주제로 Heru Pambudi 관세청장의 발표

가 끝나고, Robert Pakpahan 국세청장의 ‘Tax Revenue Update & Fiscal Year 2019 Policy Direction’ 발표가 계속되었다. 이날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 Hariyadi B. Sukamdani 회장은 참석자들에 노동 집약적 최저임금 규제, 사회적 책임(CSR) 그리고 종교 관련 민감한 공공 이슈를 다룬 정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Shinta W. Kamdani 부회장도 참석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코참 이강현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산업부, 관세청, 국세청 국장이 참석하여 한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매년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를 초청하여 신 규정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인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한인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전달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행사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후원하여 코참에서 개최하는 연례행사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코참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공:코참)



해운과 조선업...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지난 2월은 세계 1위,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살림을 합친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 세계 조선업계가 들썩였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은 IMF 구제금융 사퇴로 1999년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주인 없는 회사로 있다가 20년 만에 현대중공업 그룹 인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내 조선업은 출구가 안보이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의 발주량 증가와 함께 중국선사들의 수주량 감소까지 더해지며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였다. LNG선에 강점을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내다보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적기라고 판단한 듯 하다.

양사는 인수합병 시 물리적 규모 면에서 비교 대상 없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 수주잔량만 놓고 보면 세계 수주잔량 5분의 1을 독식하는 수준으로 해외에선 경쟁국들이 벌써부터 경계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새로 탄생하는 공룡 조선사가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수주를 흡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국내업체끼리 혈값 수주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여하튼 금번 합병이 현실화 되면 압도적 수준의 세계 1위 조선사가 탄생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국내조선업이 회복을 가속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필자는 금번 빅딜 뉴스를 접하며 2년전인 2017년 2월 결국 법원의 파산명령을 피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당시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떠올랐다. 2016년 법정관리 개시 당시, 과거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디딤돌이 되었던 국내 최대 해운사의 몰락에 정말 안타까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정은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의 실효성 및 이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추가지원을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결론이었으나 왜 당시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정리키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명쾌한 게 없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정부는 6조원이 넘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약 40년의 업력을 가진 세계 7위 선사를 살려내지 못하고 뒤늦게 해운업을 재건한다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굳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당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권에만 국한된 이야기이며 실제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인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았다. 법정관리 개시신청 이후 한진해운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공해상을 떠도는 바람에 짐을 실은 화주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으며 당장 선박을 통해 물건을 보내야 하는 기업들은 대체 선박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내 해운업의 몰락이 조선 시장의 불황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다. 전세계 해운 및 조선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8년까지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의 수주잔고를 기록하며 세계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었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결정했던 2016년에는 중국 조선사들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국내 조선업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우기 2016년 당시 각국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 조선소를 살펴보면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거대해진 중국 해운사들의 경우 90%가 넘는 거의 대부분의 선박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80%에 가까운 발주물량을 자국 조선소로 몰아줄 만큼 해운업과 조선업은 운명을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조선업의 발주처가 되어 주어야 할 국내 해운사들이 몰락은 조선업의 수주절벽으로 이어지며 울산과 거제 지역 등 남해

안 조선업벨트 도시들에만 수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였다. 조선업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운사의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구조조정 실패와 관련 당국의 정책실패로 국내 해운사들은 폐사 위기로 내몰리었다. 선박을 사주는 해운사가 없으면 조선업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STX그룹의 부도 시에도 증명된 적이 있음에도 당시 당국은 ‘조선업은 고용인원이 많아서 부도 시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 해운업은 고용인원이 적어 조선만큼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조선-해운산업 간의 연계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고수한 듯하다.

굴곡진 해운·조선업의 운명을 지켜보며 ‘금융은 단순한 자금의 창구 역할을 뛰어넘어 실물 경제에서의 혈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과 동시에 필자 또한 금융인의 한사람으로서 금융의 참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돌아 보게된다.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독립전쟁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2019년 3월 4일(월) 오후 1시-5시

Atma Jaya University, Gedung Yustinus Auditorium (15th floor)

발표 : 김성석(UPH 교수), Rostineu S.S, M.A.(UI), 김문환(교민사 연구가), Hendi Johari(Jurnalis Historia)

사회 : 배동선(작가), Pangeran Ahmad Nurdin

신청 : 한인니문화연구원 0838-7834-7811(SMS)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억, 화해 그리고 평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위해
동포사회와 함께 △기념식, △포스터 공모전, △세미나, △문화체험행사 등 개최**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 화해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 하에 재인도네시아 동포사회와 함께 △기념식, △포스터 공모전, △학술 세미나, △문화체험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대사관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 동포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3.1절 기념식을 3.1(금) 18:00 개최,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삼창 등을 진행하고, 아울러 △동포단체 주최 평화걷기대회(3.3)에 참여하여 3.1운동을 재현하는 시가행진 실시 계획

○ 또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독립전쟁’을 주제로 세미나(3.4)를 개최하고,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작품을 각종 관련 행사에 전시 예정

○ 한편, 인도네시아 국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대사관 주최 기념식에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 등 한국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고, △인도네시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3.1절 관련 문화체험 행사 및 문화공연도 개최 예정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주최하는 주요 행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1절 기념식) 3.1(금) 자카르타(레플스 호텔)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재외동포들의 민족 정체성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식 개최

※ 동포·기업 대표 및 대사관·대표부·공공기관 등 총 400여명 참석)

○ (포스터 공모전) 인도네시아 국민과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

년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콘텐츠 공모(포스터 및 일러스트레이션) 및 우수 작품 공모전 실시(우수 작품 전시)

○ (학술 세미나) 3.4(월) 13:00~17:00간 아뜨마자야(Atma Jaya) 대학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역사에 대한 소개와 이해’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한-인니문화연구원 주관, 아뜨마자야 대학 및 히스토리카(인니역사연구재단) 후원

※ 김성석 UPH 교수, Rostineu UI 교수, 김문환 교민사 연구가, Hendi Jo 인니역사연구재단 저널리스트 발표

○ (문화체험) 3.16(토) 문화원에서 △3.1운동 100주년 미니 전시관, △3.1운동 관련 영상 상영 및 프레젠테이션, △태극기 그리기(에코백), 전통문양 만들기(핀 제작), 무궁화 포토존 설치 및 SNS 홍보, 페이스페인팅, 전통 간식 시식, 전통놀이 코너 등 운영

○ (문화공연) △3.19(화)~21(목)간 자카르타 아이스펠리스 및 3.23(토)~24(일)간 스마랑에서 비밥(Chef) 순회공연, △4.6(토) 19:00 자카르타 발라이 까르티니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주제로 춘앵전, 산조합주, 부채춤, 아리랑연곡, 소고춤, 판굿/비나리 등 6개 작품 공연(부산국악원 주관)

□ 한편,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는 3.3(일) 하루에 걸쳐 △3.1운동 100주년 평화걷기대회(06:30, 수디르만 거리, 동포단체 연합 주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특별 강연(10:00, 롯데쇼핑 애비뉴,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주관),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문화공연/사진전(14:00, 롯데쇼핑 애비뉴,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주관)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 27일, 한국문화원 제공)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 두 동물만이 허리병이 걸린다고 한다.

호랑이는 제 힘과 재주만 믿고 높은데서 뛰어내리거나 멀리 뛰거나 할 때 착지가 불안정하여 허리병이 생긴다.

사람은 원래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할 것을 건방지게 서서 다니다 보니 항상 허리에 과중한 힘이 걸려 허리병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허리병은 평소에 꼳꼳하게 서서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살을 찌지 않게 하고 평소에 맨손 체조 등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골프 칠 때도 한국에는 캐디들이 준비운동을 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하는 무리한 운동은 허리병을 유발하게 한다.

시골의 농사꾼들은 억세게 일을 하니까 허리병도 없고 골다공증도 없다고 한다.

반면에 도시의 부인들은 40.50대만 되어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힘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축적되어 뼈는 튼튼해진다. 질병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전 통보 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와 같다.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 그리고 덕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질병의 원인은 주로 적게 몸을 움직이고,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며, 욕심 사납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된 원인이 있다.

일반적인 환자들, 특히 당뇨 환자들은 금기하는 음식이 많아 소나 염소처럼 풀만 먹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당뇨에 좋다는 음식, 약품, 건강법은 백과사전 분량만큼 많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병

이 나았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설사 낮는다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고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먹은 양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하면 된다.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해발 1,000 미터가 넘는 산의 숲이 우거진 길을 설령설령 두 시간 이상 걷는 것이 최고이다.

어떤 운동이라도 모든 운동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예컨대 테니스는 팔꿈치를 아프게 하고, 골프는 늑골 골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조깅은 아킬레스건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이 최고로 좋다. 걸으면 물레방아 돌듯이 운동관성이 생겨 기운 순환이 된다. 기운 순환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체에 기를 내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신에 기운이 전달되는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환자의 1차 건강요법으로는 적당치 않다. 걷는 게 제대로 된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하든지 해야 한다.

도시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는 만성 피로감이 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간이 나빠지고, 간염증상이 생기면 눈이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피로하다고 눕는 것 보다는 자연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간의 해독 능력을 키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10 퍼센트 이상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문제 없는 부부들이 임신을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들이 대체로 식물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태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에



게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도록 시키고 기진맥진하게 중노동을 시켜 땀을 흘리게 하면 3개월 이내에 임신이 가능하다.

옛날 궁중의 여인들이 임신하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일반 여자에 비해 임신이 잘 되지 않았다. 물론 씨앗이 부실한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힘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임신이 너무 잘 되어 걱정하고, 궁궐 여인들은 임신이 잘 안되어 걱정한 이유는 운동부족으로 체력의 차이이다.

피부병도 그 원인의 대부분은 간에 있다.

얼굴에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약을 주로 바른다. 가벼운 피부병이야 바르는 약으로 치료 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 전혀 해결 되지 않는다. 많은 병의 원인은 간이 안 좋기 때문이다. 간이 나빠지는 원인은 술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의 생활은 50년 전만 하여도 절대 빈곤 상태였다. 때문에 밥 한 끼 제공 하는 게 큰 인심이었고, 귀한 식량으로 만든 술을 내오는 것은 더더욱 귀빈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술은 우리 문화에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옛날 선비들

은 낮부터 식사 때 반주로 술을 마시고, 밤에는 기생 끼고 술판을 벌려야 풍류를 즐기는 멋진 선비로 인정받았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접대에 술이 없으면 안 되고, 회식에 술이 없으면 안 되고, 친구들과 만나도 술이 거나해야 못 다한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술을 자주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고, 몸과 정신이 황폐해 질 수 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면서까지 기분이 좋아질 필요는 없다. 다른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게 현명하다. 술을 마시면 또 다른 나쁜 것 중의 하나는 과식이다.

저녁에 술과 함께 다량의 음식물을 몸속에 쏟아 부으면 뇌세포는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게 된다. 밤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에도 걸리기 쉽다. 산골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한, 두 달 생활하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가까운 거리에도 차를 타고, 힘쓰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음식은 고단백질로 과식을 하니 자연히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비만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로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체질이 된다.

우리의 인체는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람의 몸은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말처럼 아침은 양껏 먹고 해가 진 다음에는 일체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건강한 식사법은 아침과 점심은 제대로 먹고 오후에는 간식으로 때우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생수 외에 음식은 일체 먹지 않는 것이 비만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매일 새벽 마스크를 쓰고, 30분간 조깅을 하면 효과적이다.

조깅이 힘들면 줄넘기도 가능하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참고 계속하면 폐와 간이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져 성적이 올라가고, 건강한 체질이 된다.

간이 나빠서 만성피로나 당뇨, 고혈압, 피부질환, 우울증 등에는 젊은 시절부터 강도 높은 노동과 운동에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여 2시간 이상의 등산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병들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현대병이 점점 더 불치병, 난치병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육체적인 몸놀림은 거의 하지 않고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사용하여 몸의 면역력을 낮추다 보니 간 질환이나 암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따라서 요즘 현명한 노인들은 집안 청소와 빨래 등을 일부러 직접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침대에만 누워 있

으면 하루 1.5 퍼센트의 기력이 떨어져 70일 이면 송장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산을 걷기만 하면 대부분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요양한다고 누워 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죽을 각오로 산길을 걷다보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다.

건강과 체력은 나이와 무관하다. 30대인데도 노인부부가 있는가 하면 나이 많은 젊은 부부도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인생의 목표는 “무병장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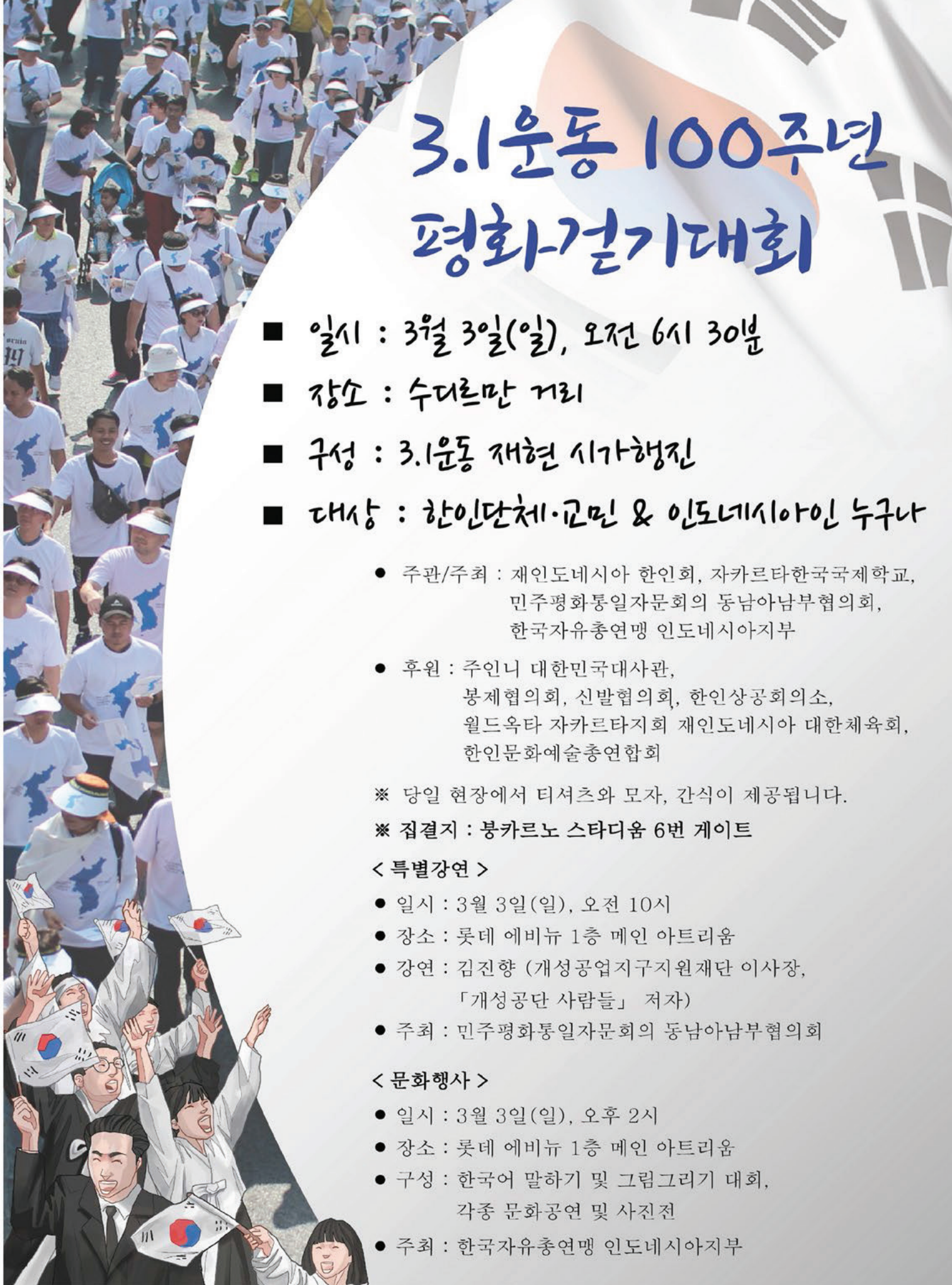
아흔 살에도 지리산이나 한라산도 등반하고 30대와 다름없는 부부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비결은 가능하면 높은 산 보다 물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 낮은 산을 1 시간가량 올라가, 차가운 계곡 물속에서 하반신만 15분간 담그고, 산을 내려오는데 45분 정도 소요되는, 하루 2시간을 투자해 100일 간만 실행하면 10~20년이 젊어지고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건강체가 된다.

이러한 환경에 살지 않는 도시인들은 무조건 공기 좋은 곳을 많이 걷는 것이 좋다. 이때 천천히 걷기 보다는 옷에 땀이 흠뻑 젖을 만큼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

이후 찬물에 반신욕은 목욕탕을 이용하면 된다. 냉탕 속에서 깊은 산속의 계곡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 효과가 탁월하다. 찬물에 반신욕을 하는 것은 취약 부분에 기운을 물리적으로 보내는 강제 순환 원리이다. 기운 순환이 원활해지면 질병은 사라지고 젊은이 같은 건강이 찾아온다.

자료 출처: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화타 김 영길 지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공



3.1운동 100주년 평화걷기대회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수더르만 거리
- 구성 : 3.1운동 재현 시가행진
- 대상 : 한인단체·교민 & 인도네시아인 누구나

- 주관/주최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 후원 : 주인니 대한민국대사관,
봉제협의회, 신발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 당일 현장에서 티셔츠와 모자, 간식이 제공됩니다.

※ 집결지 : 봉카르노 스타디움 6번 게이트

< 특별강연 >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롯데 에비뉴 1층 메인 아트리움
- 강연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개성공단 사람들」 저자)
-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 문화행사 >

- 일시 : 3월 3일(일), 오후 2시
- 장소 : 롯데 에비뉴 1층 메인 아트리움
- 구성 : 한국어 말하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문화공연 및 사진전
- 주최 :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게릴라부대를 시찰 중인 수디르만 장군. 그 우측이 제10여단장 수하르토 중령.
맨 우측은 훗날 수디르만 장군이 타개한 후 군사령관이 되는 TB 시마뚜빵 대령.

지난 호에 이어

한편 D.R.A 반 랑겐 대령이 이끄는 네덜란드군 중무장 보병과 공수대원들은 마구위 비행장에 집결해 본격적으로 족자 집수를 준비했다. 이날 족자의 대부분 거점들이 네덜란드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공군본부와 참모총장공관들도 네덜란드군의 폭격과 인도네시아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수카르노 대통령, 하타 부통령, 수판 샤리르 전총리 등 공화국 핵심지도자들은 네덜란드군에게 사로잡혀 북부 수마트라의 네덜란드 점령지인 뿌라팻으로 보내져 감금되었다가 나중에 방카섬의 유배지로 이송된다. 신생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가 통째로 네덜란드군에게 나포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패망하는 듯 보였다.

이 사건은 비록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외교적 노림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수디르만 장군 휘하의 인도네시아군과 함께

목숨 걸고 족자를 탈출해 게릴라전에 참전하기보다 손쉽게 목숨을 구하려 항복하여 인도네시아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간 정치가들의 비겁한 선택이자 변절이라 여겨졌다. 한편 술탄 하멩꾸부위노 9세는 방카로 유배되지 않고 네덜란드 점령기간 내내 홀로 족자에 남았다. 그는 네덜란드의 어떠한 협력요구도 거절했고 친네덜란드 성향의 뿐띠아낙 술탄 하미드2세의 중재제외도 단호히 거절하는 강단을 보였다.

부깃땡기 긴급정부, 그리고 수디르만 장군

12월 20일, 살아남은 공화국군은 모두 족자에서 철수했고 아체와 수마트라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거의 전 지역이 네덜란드군에게 점령되었다. 당시 폐결핵 말기로 접어들고 있던 수디르만 장군은 병상에 누워서 정부군 게릴라들을 지휘했다. 자바 지역군 사령관 나수티온 대령은

자바섬에 군정실시를 천명하고 ‘전국민 무장투쟁’이라는 게릴라전술을 펼쳤는데 이는 민간의 지원을 받아 교외와 시골 전체를 게릴라전의 전선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앞서 계획되었던 비상시국 긴급정부는 12월 19일 서부 수마트라의 부킷땡기에서 선포되었다. 정식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긴급정부(PDRI)였고 샤리푸딘 뿌라위라스가 그 수장을 맡았다. 수카르노는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 족자 함락 직전에 샤리푸딘에게 전보로 명령서를 보냈지만 그 전보는 1949년이 되어서야 샤리푸딘의 손에 들어온다. 그러나 샤리푸딘은 족자 함락소식을 듣고 당초 마련되어 있던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긴급정부를 수립했고 수카르노가 석방되던 1949년 6월까지 비록 짧은 기간 중이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입장은 이랬다.

“샤리푸딘씨, 그럼 당신이 수카르노를 대신해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라고 까밀꼬또가 물었다.

“꼭 그렇진 않아요. 맡은 일만 본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난 긴급정부의 대통령이라 불리기 보다는 긴급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게 좋습니다.” 샤리푸딘 뿌라위라스가 까밀꼬또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 (악말 나세리 바스라이의 저서 “대통령 뿌라위라스가라” 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카 유배시절

수디르만 장군은 이 사실을 듣고 즉시 라디오방송을 통해 긴급정부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당시 인디아의 뉴델리를 방문중이던 재정부장관 마라미스도 샤리푸딘이 받은 것과 유사한 전보를 받았지만 그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 1949년에 들어서 긴급정부는 자바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던 수디르만 장군을 비롯한 군지휘관들, 족자침공 당시 네덜란드군에게 잡히지 않은 여섯 명의 각료들과도 마침내 연락이 닿아 연계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많은 신문들이 꼬라이작전을 잘 포착해 보도했지만 미국신문들은 사실을 통해 네덜란드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미국정부는 네덜란드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총 10억달러의 마샬플랜원조를 연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거액을 인도네시아에서 벌이는 전쟁에 쏟아 붓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원조가 ‘정신나간 비효율적 제국주의’에 돈을 보태주는 행위라는 관점은 미공화당을 포함해 미국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네덜란드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려세웠고 미국내 교회들과 NGO들도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948년 1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적대행위의 중지를 촉구했고 1949년 1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의 복권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거세게 거부하는 네덜란드에게 원조중단카드를 내밀었다. 네덜란드는 어차피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동인도제도에 서의 전쟁을 지속할 수도 없을뿐더러 아무리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들 네덜란드군이 자바섬의 모든 촌락과 마을들까지 구석구석 점령, 통제하고 게릴라들을 소탕하려면 당시 이미 인도네시아에 와 있던 병력 15만 명 외에도 최소한 10개 사단 이상, 20만 명 가량의 병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야만 했다. 그것은 네덜란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네덜란드군의 당시 병력으로는 게릴라가 준동하는 점령지에서 주요병참선

을 지키는 것만도 힘에 벅찼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네덜란드는 어차피 족자를 함락시켰고 자바와 수마트라의 주요도시 대부분을 수중에 넣는 등 전술적 목표들을 거의 다 달성한 상태였으므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자바에서는 1948년 12월 31일, 수마트라에서는 1949년 1월 7일 휴전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계속된 게릴라전이 실제로 완전 종료된 것은 1949년 5월 7일 로엠-반로엔 조약이 서명된 후였다.

끄라이작전 이후 수디르만 장군과 살아남은 공화국군은 네덜란드군의 집요한 추적과 공격을 피해 산속으로 스며들었다. 폐결핵으로 무너져 내리던 육체를 지팡이와 가마에 의지하여 족자에서부터 라우산 인근 소보(Sobo)까지 1천여 킬로미터의 험준한 산악을 헤쳐나갔던 수디르만 장군과 그 일행의 일화는 몇 년 전 상영된 ‘젠드랄 수디르만’ (Jendral Soedirman)이라는 영화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모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멸망했다고 생각하던 순간 소보에 마련한 기지에서 전국적인 게릴라전을 지휘하며 끝까지 저항하여 공화국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거했던 수디르만 장군은 그 스스로가 이미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체였다.

패퇴를 거듭하며 와신상담하던 인도네시아군이 마침내 반격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우선 전화선 절단, 철로 파괴, 네덜란드군 병참수송대 공격 등 각종 방해작전들을 먼저 전개했다. 네덜란드군은 어쩔 수 없이 점령한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로변에 초소들을 늘려야 했는데 한정된 네덜란드군 병력을 광범위한 지역에 얹게 포진시켜 특정지점에 대한 수비강도를 획기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군에게 반격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동부자와의 경계에서 지역사령관으로서 제2 지역과 제3 지역의 게릴라망을 구축해 온 윌리어머르 후따갈롱 중령은 1948년 9월부터 제2 지역사령관 가똏 수브로토 대령, 제3 지역사령관 방밤 수경 대령과 수디르만 장군 사이의 연락



젊은 시절의 족자 술탄 하멩꾸부워드 9세(좌)와
본띠아낙 술탄 하미드 2세(우)

창구 역할을 했고 또한 그 스스로 의사였으므로 군무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 폐결핵으로 고통받던 수디르만 장군을 간호하기도 했다. 그는 1949년 2월 수디르만 장군을 만나 네덜란드 측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인도제도 정전결의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거부했음을 보고했다. 부깃땡기의 긴급정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고 수카르노의 공화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포로가 되어 방카에 유배된 상태였으니 네덜란드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오직 수디르만의 게릴라부대들만이 공화국의 마지막 호흡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디르만은 네덜란드의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역이용할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후따갈롱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정규군이 아직 건재함을 미국과 전세계에 각인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프로파간다를 단번에 타파할 화려했고도 대대적인 군사공격으로 유엔안보리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디르만 장군은 이 아이디어를 수용해 인근 지역사령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토록 지시했다. 이에 후따갈롱은 1949년 2월 18일 숨빙산 중턱에서 제3 지역사령관 밤방수경 대령과 제2방어선 지휘관 사르비니 마르토디하리오 중령, K.R.M.T 웅소느고로 주지사, 반자르느가라의 군수 R.A. 수미트로 꼴로빠깅, 상이디의 군수 등을 불러모아 수디르만 장군이 동의한 군사작전에 대해 설명

하고 협의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후파 갈룽이 제안한 계획을 모두 동의했지만 공화국군 주력의 침공목표에 대해서만큼은 밤방수경 대령이 족자를 고집했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1. 족자는 공화국의 수도이므로 단 몇시간 만이라도 탈환할 수 있다면 공화국군과 인도네시아인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 것이다.
2. 외신기자들은 물론 유엔안보리의 3국대표단(KTN)과 군사감독관들도 족자 머르데카 호텔에 머물렀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정보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족자는 자신의 제3 지역군 관할이므로 족자 침공은 제3 지역군만으로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제3 지역군은 그사이 네덜란드군 단위부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격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공격훈련도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게릴라전을 시작한 이후 뽕소노고로 주지사를 비롯한 민간관료들이 군작전회의에 늘 참석하면서 그 결정에 따라 기민하게 주민들을 조직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병참지원이 가능했다. 자주 장소를 옮겨다녀야 하는 게릴라들에게 있어 물자 조달을 위한 주민들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해당 지역 군정 주지사들, 즉 지역사령관들의 역할이기도 했다.

그들은 미리 시내에 침투해 있다가 공격이 시작될 때 시내 호텔들에서 유엔안보리 인사들과 외신기자



제3 지역군 사령관 밤방수경 대령(왼쪽)과 뽕소노고로 주지사(오른쪽)

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나서 공화국의 상황을 설명할 젊은이들도 필요했다. 그 젊은이들은 훗날하고 건장하며 네덜란드어, 영어 또는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들에겐 모자에서 군화까지 깔끔한 공화국 정규군 장교군복이 지급될 터였지만 또 한편으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군에게 사살되거나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국가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정신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숄빙산에 소재한 국방부 군정치교육담당 위요노 대령이 이 조건에 맞는 젊은이들을 수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규군의 족자침공사실을 실시간으로 국제사회에 보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일은 T.B. 시마뚜뽕 대령이 맡았다. 그는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그 사실이 즉시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위노사리 인근 뽕라옌 소재 인도네시아 공군 라디오방송국과 긴밀한 통신라인을 구축했다.

한편 공화국군의 족자침공은 중부자바 다른 도시들로부터 네덜란드측 지원군들을 불러 들일 것이 분명했다. 그들 도시 중 마글랑과 스마랑은 방방수경 대령의 제3 지역군 관할이었고 솔로는 가뭇수브로또 대령의 제2 지역군 관할이었다. 계획된 시간 내에 효과적 작전수행을 위해 이 네덜란드 증원군을 중간에서 격퇴하거나 지연시키려면 제2 지역군과의 협조가 필요했다.



샤리푸딘 뽕라위라느가라(Sjafruddin Prawiranegara) 금융인, 독립 당시 KNIP의원. 훗날 중앙은행 총재등을 역임

다음호에 계속



2019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연내 타결 목표' RCEP 협상 22일 인도네시아서 개최



지난해 싱가포르 RCEP 정상회의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5차 공식협상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일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 75명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상국들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국 산업부는 올해 첫 협상인 이번 협상이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연내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 통관, 지적권 등 규범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인니 작년 경제성장률 5년만에 최고치...조꼬위 재임 영향 줄까

인도네시아의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꼬위 도도(통칭 조꼬위)대통령의 재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작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5.1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치(5.1%)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2018년 1년간의 GDP 성장률도 전년 대비 5.17% 수준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판매율이 전년도를 상회하는 등 개인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GDP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개최된 아시안게임 등 국제 이벤트를 개최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꼬위 대통령이 취임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만큼 오는 4월 예정돼 있는 대선에서 조꼬위 대통령의 연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4월 17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유권자는 1억 9,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선은 5년 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조꼬위도도 현 대통령과 숙적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 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의 재대결로 펼쳐진다.

조꼬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꼬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국자본 유치와 인프라 개발 등을 발판으로 매년 5%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과 인프라 확대 추진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향후 5년간의 2기 체제를 완성하는데 있어 유권자를 설득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친서민·개혁 정책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2014년 대선 당시와는 다르게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韓정 부, 5년만에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 재개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한 공동선언문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ASEAN) 10개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후 양국 관심사를 더 깊이 논의하고자 2012년 3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이며, 교역·투자·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을 타결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공식협상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상 역량을 집중해 올해 중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통상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모여 신보호무역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협력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8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모드 아민 루 압둘라 재정경제부 2장관과 양국 통신협력, 투자협력, 에너지·인프라 분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21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다렐 레이킹 통상산업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 내셔널 등과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대선 앞둔 인도네시아, '경제 악재' 흔들

인도네시아의 2018년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정권이 외국인 투자 감소와 지나친 재정 지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적인 악재들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정부의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정 운영과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6위의 국가로, G20에 가입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다. 게다가 조코위 대통령이 이끄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상여금을 증액하고, 연금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인도네시아 노동인구의 약 4%에 육박하는 450만명에게 총 35조 루피아(한화 약 2조8,210억원)을 지급했다.

늘어난 소득과 아시안게임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총회 등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들은 국민들의 소비 지출을 늘리게 했고, 이는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밑바탕이 됐다.

조코위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순조롭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3%로 설정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파란빛 전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오는 4월 공무원 급여가 5% 오른다. 현지에서는 이미 만성적 재정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 자본 출자제한 완화와 투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세계은행이 조사하는 투자환경 평가에서 2013년에 120위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는 4년만인 2017년에 72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대신 내수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올 4월 치러질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 루피아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석유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지만 소비가 늘면서 석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회사에 국산 바이오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석유 제품의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뉴스 콕! 짚어보기

■ 2월의 헤드라인 ■

첫째 주

- 19년 재정적자 확대 예측. 원유가 하락, 미 금리 인상 요인
- 뽀르따미나 팜바이오 디젤 (B100) 생산 합의. 투자 6-8억달러. 이태리 ENI 협력
- 엑손모빌 인도네시아 미니 주유소 1만개 설치. 소매 급유소 확대 본격화
- 땡기 환자 급증 전년대비 3배. 금년 들어 133명 사망. 보건부 주의 환기
- 고속도로 2륜차 주행 허가 본격 검토에. 교통부
- 작년 외국인 관광객 1,581만명. 전년대비 13% 증가. 정부 목표 미달
- 석탄등 특정품목 수출입 보험. 국내 보험사 이용 의무화. 무역부
- 국영전력공사 (PLN). 19년 순익 목표 8조루피아 책정
- 도심 사리나 그룹 . 중앙자카르타 복합시설 건설. 국영건설 2개사 제휴
- 맥도날드 금년 20개 점포 추가 오픈
- 발릭빠뻬 - 사마린다 고속도로. 일부 개통 공사진척율 85% .
- 작년 세무 관련 소송 급증(7813건) 전년대비 40.6% 증가 (세제불투명)

둘째 주

- 19년 초고급 승용차 시장 . 전년과 동일 수준. 사치세 인상 영향
- ‘텍스헤븐’ 행위 규제 (CFC Rule) 관련 규정 개정 착수. 재무부
- 자카르타 수도사업 재 공영화 방침. 현재 민영 2개사에 위탁중
수도보급율 1998년 (44.5%) 2017년 (59.4%) 2023년 82% 목표
- ‘히노자동차’ 금년 판매 12% 증가 목표 설정
- 족자 신공항 건설 현재 진척률 53%. 금년 4월 일부 개통
- 4륜차 수출 수속 간소화 방침. 세관 수출신고전 완성차 보세구역 반입허가
- 수도권 산업공단용지 판매 면적. 18년은 전년 대비 부진 177.8 ha (17년 208.22ha)
- 인니 전자상거래 (EC) 수출. 2017년 28조루피아, 2030년 8.5배 증가240조 전망
- 도시가스망 건설 12조루피아 투자. 2025년에 500만가구 공급 목표
- 가루다항공 국내 전노선 20% 운임 인하. 소비자 보호 우대 차원
- 신규 진출 자동차 3사 세 우대 조치 요청. 법인세 일시면제, 토지취득, 수출간소화
- 석탄 국내 공급 우선 의무 . 금년 1억3천만톤 책정. 생산량의 26 %

셋째 주

- 러시아와 바터 무역 난항. 수호이 11기 (11억4천만불)와 인니 농산물 외 (5억4천만불) 교환. 인니 수출 품목 지정에 러시아 난색
- 신재생 가능에너지 발전사업. 금년 73.6만 KW 건설
- 1월 자동차 판매 속도치 8.1만대.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
- 작년 12월 대외채무 전년 대비 6.9% 증. 총 3,768억 미달러
- 1월 시멘트 소비량 562만톤. 전년대비 1.3% 감소
- 자카르타주 19년산업별 최저 임금 결정. 자동차 전년대비 10% 인상
- 대선 : 조코위 디지털화, 뿌라보워 인프라 개발 따른 주민 보상 중시
- 석탄재벌 아다로. 19년 설비투자액 최대 6억불
- 1부리그 소속 발리 프로축구팀 30%주식 공개 (IPO). 15일 OJK허가
- PLN 18년도 전력 판매 5.14% 증. 산업용 전력 판매 급증 요인
- 수출 촉진 조치에 기업의 27% 가 수속 간소화 건의
- 18년 국내 석탄 생산 5.48억톤. 전년대비 19% 증가

넷째 주

- 10개주 하랄 관광지로 지정. 세계 무슬림 여행 유치 전략
- 19년 가전 판매 전년 대비 10% 증가 예측. 4년연속 감소에서 회복 - GABEL
- 18년 국영기업 (총 115사) 순익 108조루피아. 전년대비 1% 증가
- 빈탕 (맥주)그룹. 18년 매출 증가에 수익은 감소 (1조 2246억/ - 7.4%)
- PLN 향후 10년 전력공급 사업계획 발표 (RUPTL). 2023년 재생에너지 23%
- 19년 뿌르파미니 설비투자 42억달러, 21년 70억달러. 정유 시설에 집중투자
- 수도권 LRT 1차 구간 5.8 Km 3월말 운행개시. 끌라빠가딩 - 라와망운 구간
- 18년 은행업계 순익 14 % 증가. OJK
- 쓰레기 소각 발전소. 19-22년 12기 가동 목표. 일 소각 6천톤
- 18년 해외여행자수 975만명 (1.3%증). 저가항공 이용 중산층 증가
- 플라스틱 업계 19년 매출 목표 6.8억달러 (전년 4억달러). 달성은 난항



Wabaru Tsuki No Fune (Pakubuwono)

글: 주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안녕하세요~로맨틱한 발렌타이데이 저녁식사 잘 하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유명한 일식당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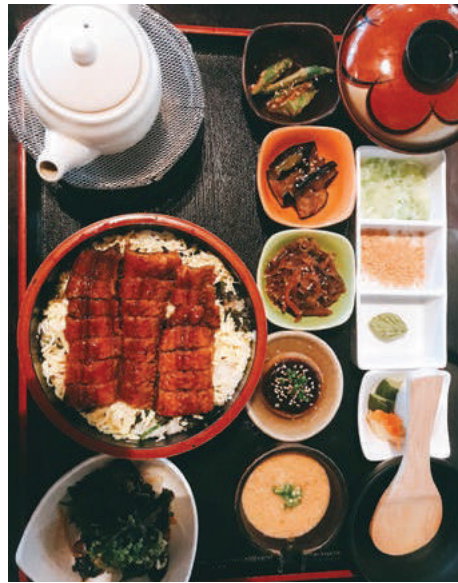
자카르타에는 한국인만큼 일본인도 많이 거주하잖아요~ 한국인들이 한식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어느 일식당을 찾아갈까?” 하는 궁금증에 수소문하여 알아봤습니다^^ 일본인들이 다니는 자카르타 일식당편!

처음 식당 <Wabaru Tsuki No Fune> 위치를 안 순간, “어머~이런 곳에 맛집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간다리아 씨티 몰 근처 Veranda Hotel 로비 층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나름 호텔 일식당^^;;) 호텔 일식당이면 당연히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이 곳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일본 가정식을 파는 곳입니다. 특히, 가성비 좋은 런치메뉴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참고로 점심시간에는 오직 런치메뉴만 판매한다는... 단품메뉴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ㅠㅠ)

이 곳의 대표 런치메뉴인 Wabaru Gozen (260,000루피아++)는 우선 비주얼과 양에 감탄합니다@@ 아기자기한 음식들이 무려 9개나 나와요~ 3종 세트 회, 연어구이, 장어구이, 쇠고기구이, 모듬 튀김, 치킨치즈까스 등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음식들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가정식 양이 너무 적어서 항상 아쉬웠던 분들을 만족시킬만한 양입니다. 특히, 장어구이와 3종 세트 회가 가장 맛있어요~

Asakusa Hitsumabushi Gozen (240,000루피아++) 역시 이 곳의 인기메뉴인데요~ 히츠마부시는 일본식 장어덮밥으로,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주걱으로 장어와 밥을 밥공기에 덜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깁니다.
둘째, 장어덮밥에 와사비와 파를 얹은 후에 섞어서 먹습니다.
셋째, 와사비와 파를 섞은 장어덮밥에 김가루를 추가로 얹히고 오차즈께 육수를 부은 후, 말아서 먹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차즈께 육수에 말아서 먹는게 가장 좋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너무 달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는 쫄쫄하면서도 부드러운 장어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맛도 좋지만 먹는 재미도 있는 이 메뉴 역시 양이 푸짐합니다~

참, Gozen는 정식이라는 뜻으로, 런치정식 모든 메뉴를 주문하면 에피타이저로 야채 샐러드, 디저트로 파파야가 곁들여진 요거트를 줍니다. 일본인 셰프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들여 요리를 해서 그런지..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오래 기다린만큼 보람이 있는 일본 가정식을 드실 수 있을거예요~ 꼭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가성비 좋은 일식당으로 강추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Wabaru Tsuki No Fune>

음식 종류 : 일식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30 ~ 14:30,
18:00~22:00
전화번호 : 021-7391-0038
위치 : Veranda Hotel Lt. GF,
Jalan Kyai Maja No. 63,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Zomato 참고



우병기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bgwoo@korindo.co.id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1997년 11월 발생한 IMF 외환 위기라고 말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30대 연령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IMF 외환위기는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국민들 삶에 어떤 식으로든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낙관적인 중상주의 정책들을 쏟아 내었으며 기업들은 정부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금융 자양분으로 경쟁자 없는 좁은 내수시장에서 승승장구 하였다.

하지만 장밋빛 밝은 미래만 있을 것 같은 기대와는 달리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날에 직면한 것이다. 나라의 경제주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국가적인 사건은 내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경영학과 2학년생 이었던 나는 4학년 선배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운 좋게 취직 한 선배마저도 입사취소 통보를 받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느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신문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가장 많은 인구를 형성한 90년도 학번 세대는 ‘저주받은 학번’이라는 사실을 통해 슬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나라에서 놓아 버린 경제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당시 모든 국민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만했다. 그것이 국민 전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금모으기 운동 결과에 대한 평가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IMF 지원 금융자금을 조기 상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온 국민의 단합된 구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운동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해외취업 이라고 생각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한 덕분에 운 좋게도 나는 2000년 대학 졸업

과 동시에 첫 직장 생활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구제금융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어수선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낀 상실감 또한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낸 정치 안정화는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수 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기간(2004년 ~ 2014년)을 거쳐 조코 위도도 대통령(2014년 ~ 현재)으로 이어지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성숙한 민주주의의가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입증 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 하여 세계17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G20개국의 일원으로 성장 하였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브랜드 이미지 도 한층 높였다. 2019년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명실공히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라고 자부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코린도 및 남방개발 등의 초기 한인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동시에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역사도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많은 교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역사는 내년 2020년 이면 100주년이 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19년째 살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인 내 계도 인도네시아의 한인 이주역사가 100년이 되었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정보이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 연구자인 김문환 선생의 자료에 의하면 1919년 당시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 돈의 일부를 3.1운동자금으로 빼돌렸다가 일본경찰에 적발되자,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으로 탈출했고, 독립자금을 마련하라는 상해 임시정부의 명령에 의해 1920년 9월에 바따비아(Batavia, 자카르타의 옛 이름)로 온 장운원 선생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출발점 이라고 한다. 장운원 선생은 일본 패망 후 바따비아에 설립되어진 재 자바조선인민회(인도네시아 최초의 한인단체)와 고려독립청년당(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제에 무력 항거한 단체 - 이상문 선생 등 2008년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됨)을 후원했고, 일본 군속으로 왔던 징용자, 포로감시원, 위안부 등 조선인들의 귀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한다. 100년 전 어려운 대한제국의 위기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장운원 선생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10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 선조들의 상황과 내가 겪은 IMF 외환위기 시대의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대한제국의 상징은 고종 황제이었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겼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라의 상징인 고종황제가 살아 있었고, 비록 일제의 무력통치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지만 많은 국내외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에는 언젠가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상징인 고종황제가 서거하면서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백성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각자 스스로 상실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태극기를 그렸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했다.

누군가는 거리로 나와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청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이다.

그리고 장윤원 선생처럼 나라 잃은 슬픔을 한탄하면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나라를 한순간에 잃은 위기의식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참여한 100년 전 독립만세운동은 스스로 운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자주정신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통합된 임시정부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는 이 운동을 3.1운동이라고 부른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독립을 갈망하는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많은 국민들이 애를 쓰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018년 해외 홍보문화원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며, 호감 도는 무려 96.4%라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K-드라마와, K-POP 때문 일까? 나는 그 이유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 한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건국된 인도네시아는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 두레와 품앗이 같은 상부상조 전통이 있다고 하면 인도네시아에는 고통 로용(Gotong:어깨에 지다. Royong:함께) 이라는 관습이 있다.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공동체 생활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주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이루어낸 3.1운동 정신과 아주 비슷하다. 인도네시아인 들은 그들과 닮은 공동체 생활양식을 가진 한국의 문화와 자주정신에 거부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동질감을 가진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발전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국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는것에 감사 한다. 100년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1호 장운원 선생이 지금의 우호적인 양국관계와 발전상을 보신다면 매우 기뻐하시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극난극복 역사가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위기가 오면 국민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나라이다.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민족이 협력하여 세운 인구 2억7천만 명의 나라가 지금의 인도네시아이다. 3.1운동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과 건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나라를 만들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간의 발전적인 선린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해를 맞이하여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본다.



이방인 법정

김소웅/법학박사
soju5810@gmail.com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와 규정을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국가·사회적 가치와 정의에 부합하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 하는가 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쪽을 실체법 그리고 뒤쪽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삶에는 법이라는 말이 친숙하지는 않으나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불편하고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 입니다. 그리고 마주치게 되면 이리 저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알고 있는 또는 잘 안다고 여기는(상대적임)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을 떠올립니다. 또는 거간꾼·해결사(?) 등을 고려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인이라 여기는 또는 소개 등으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법의 조력자인 변호인을 고려치 않게 되는 걸까요!

통상적인 이유로는 사안에 따라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내용까지도 알려 주어야 하는 불편함과, 가늠할 수 없는 변호비용 그리고 신뢰의 문제일 겁니다.

게다가 가장 큰 고려의 내용은 과연 변호인으로 부터 정당하고 올바른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법과 정책의 실체적, 절차적 공정성과 변호인에 대한 신뢰도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즉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가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예측하기 어려운 변호 비용도 큰 불편한 현실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체법적인 테두리보다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많은 재량과 많은 요소들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때로는 또는 종종 누가 더 권력(?)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절차적 우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절차적 행위가 실체적 내용보다도 더 많은 불편함과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이성을 혼란스럽게 빠뜨려 우리에게 고통을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 재외동포들은 법의 다툼이 없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외국인(Foreigner)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Stranger)으로서 법정에서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되어 지는 생소한 언어들, 권위주의적이고 이상한 제복들의 파시즘적 분위기, 그리고 인도네시아 법 이해의 거부감(때로는 애써 거부) 등이 법정의 절차적인 요소들과 함께 외국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자리만 남게만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의 다툼을 국제법에 호소한다거나 또는 재판 관할을 한국으로 이전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법 개념

법의 존재이유 또는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는 요소를 실현하는 의미체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고대로부터 인간들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이며 평등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



이긴 하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무엇이 정당하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당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합목적성이라는 이념을 필요로 하며, 국가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를 보장해야 하기에 법적 안정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특히 합목적성은 국가의 법 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는 원리로서 인도네시아 법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법”과 인도네시아 “법”은 대륙법 체계로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재된 양상이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실정법의 체계는 유사합니다.

대륙법 체계하의 성문법적 실정법을 택하고 있는 한국은, 법개념을 해(害)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문법적인 요소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법률 조약(국제법) 명령 조례 규칙 관습(조리)의 법체계가 크게 흔들리는 국가 사회적 혼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국가간의 조약,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명령) 및 각 부의 장관령 등, 그리고 규칙과 관습(조리)과 판례 등의 규범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 역시 대륙법 체계하의 성문법 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리적, 지정학적 요소 이외에 민족의 구성과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근 현대사에서 국가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포괄주의적 기본법(UUD 1945)과 국가철학(Pancasila)을 내세워 표준적 사고의 접근에 많은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규범과 지정학적 문화 규범은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 질서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위법과 하위법의 경계는 그 이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본법(헌법)의 하위법인 법률과 명령 등이 기본법인 UUD 1945에 합치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명령이 기본법과 법률을 허물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害)할뿐 아니라 국가의 합목적성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성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헌법)과 법률의 수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명령/시행세칙 등 성문화된 규범이 총 30,953 에 이르고 있어 한국과 비교하여 성문화된 규범의 숫자만으로도 6배가 넘고 관습, 종교규범, 각 지역의 문화 규범 등까지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의 실정법은 어디까지 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이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복잡한 성문법과 관습 그리고 문화 등으로부터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기본원칙인 Pancasila와 또 하나의 UUD1945를 규범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포괄적 국가철학인 Pancasila와 기본법인 UUD1945가 많은 수의 하위 규범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법을 다루는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행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자의적인 규범과 재량행위는 절대적이고 건전한 상식의 기준을 기대하기에 충분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방인의 법정은 가뜰이나 복잡한 규범과 많은 법률적 요소들로 더더욱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이미 일부 동포분들은 나름대로의 철학과 방편 그리고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법률적 다툼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으며, 행정적인 사안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효과적인 과정을 찾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일을 겪게 되는 원인은 위법/불법적인 요소의 해석 차이와 착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상대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착오와 위법/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모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다만 시간, 비용 그리고 절차적인 차이에 따른 상대적 내용이 존재할 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의 다툼과 마주하게 되면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의 기대가능성은 절대적(Absolutely)인 것 보다는 상대적(Relative)인 상황들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조차도 불분명하고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기업과 재외동포들에게는 혼란스럽고 기대하는 바가 아니나, 그 법률적 이익을 위하여는 상대적인 예측과 행위의 고려가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규범을 거부하지 않고 사법(Legal)적 절차에 상대적 겸손을 더해 준다면 외국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크게 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법사회학자인 Prof. Dr. Sartjipto Rahardjo 는 법률에 의하여 법정에서 다루는 것을 삼가하고, 화합과 배려에 의한 정의를 미래의 사회적 이익, 법적 이익이라고 한국의 법학자로부터 배웠다고 생전에 가르쳐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도네시아 국가가 지향하는 합목적성이 아닐까 하여 2019년 봄을 맞이하면서 화두로 놓아봅니다.

이슬람 경제의 출현과 한국인의 반응



“이슬람 금융에서 시작된 이슬람 경제는 점차적으로 이슬람식 생산, 유통, 소비를 포함한 생활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무슬림 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한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까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지난 26일 이지혁 박사를 초청해 ‘이슬람 경제의 출현과 한국인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제58회 열린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지혁 박사는 1970년대 이슬람 금융에서 시작된 이슬람 경제는 2000년 이후 서서히 이슬람식 소비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할랄 인증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하고 구매력을 갖춘 무슬림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슬람 경제가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슬람 경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적 개념의 ‘이슬람 경제학’을 주창한 파키스탄의 사상가이며 법학자였던 마우두디(Sayyid AbulA' la Maududi)는 생활 전반의 삶으로서의

이슬람을 강조하면서 이슬람 경제학이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경제학이란 이슬람의 법체계인 샤리아(Sharia)에 부합하는(compliant) 혹은 샤리아에 바탕(Sharia based)을 둔 경제학이다.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 Islamic Economy)’는 매년 세계이슬람경제지표(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 GIEI)를 발표하는데, 이 지표에서 점수로 환산되는 영역은 할랄 식품, 할랄 금융, 할랄 패션, 할랄 관광, 할랄 미디어 및 레크리에이션, 할랄 의약품, 화장품 등 7개이다. 이 중 한국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할랄 식품과 할랄 관광이다. 또한 도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할랄 금융 분야에서 수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에서 샤리아에 부합하는 경제행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찰과 저항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할랄 식품과 할랄 관광이다. 또한 도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할랄 금융 분야에서 수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한국에서 샤리아에 부합하는 경제행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찰과 저항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혁 박사는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한인기업과 로컬사회의 상호작용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인니문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ندا

민선희 (자카르타 거주)

공을 들여 구한 비싼 물건, 추억과 애정이 담긴 물건을 버리기란 쉽지 않지요.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을 갖는 것도 어렵고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유행한다고 해요.

소비습관, 디자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여러 면에서 ‘비움’을 실천하는 거지요.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나에게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네요. 멋진 서재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다시 보지 않을 책이라면 기부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수다쟁이 사니가 이사를 했어요. 일본인 친구 미카를 집에 초대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미니멀리즘에 빠진 사니와 미카’의 대화를 엿들어 볼까 해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바하사로 수다 떨기

- ① Mika : Wah....Sani, rapi banget kamarmu.
- ② Sani : Ini masih rapi karena baru pindahan, hahaha. Aku biasanya malas menata barang. Suka taruh barang sembarangan, Mika. Jadi, waktu kecil, ibuku yang selalu rajin beresin kamarku.
- ③ Mika : Haha. Sama, kita. Aku juga sering dimarahi ayahku karena kamarku selalu kayak kapal pecah.
- ④ Sani : Aku sekarang pengen coba gaya hidup minimalis, Mika.
Kemarin pas pindahan itu, aku baru sadar banyak sekali barang yang enggak aku pakai tapi masih aku simpan. Sebagian baju yang enggak aku pakai itu sudah aku buang.... dan sebagian lainnya aku kasih ke orang.
- ⑤ Mika : Iya, itu salah satu cara yang praktis, Sani. Aku pernah baca buku tentang minimalisme. Kan beberapa tahun lalu di Jepang ngetren banget tuh. Tips lainnya, kalau kamu beli barang baru, beli sesuai kebutuhan, bukan keinginan. Terus, setiap beli barang baru, buang satu barang.
- ⑥ Sani : O... itu tips yang bagus, Mika.
- ⑦ Mika : Awalnya mungkin susah menentukan barang mana yang mau dibuang atau disimpan, tapi lama-lama pasti jadi lebih gampang.
- ⑧ Sani : Iya, nanti aku praktekin.



- ⑨ Mika : Iya.. satu persatu aja. Segala sesuatu butuh proses. Aku dulu beli barang karena aku pengen, bukan karena butuh. Buktinya, habis aku beli, enggak pernah aku pakai.
- ⑩ Sani : Aku juga pernah begitu. Yang penting, enggak hedon dan enggak membeli barang cuman karena gengsi, gitu, ya?
- ⑪ Mika : Iya. Menurutku, sebenarnya gaya hidup minimalis itu bukan sekadar membuang barang atau tidak membeli barang baru. Tapi, lebih ke menenangkan pikiran kita supaya bisa fokus pada hal-hal yang jauh lebih penting.
- ⑫ Sani : Wah kamu sudah resmi jadi anak minimalis nih. Hahaha.
- ⑬ Mika : Enggak lah....hahaha. Mau aku bantu beresin kamar lain, enggak? Biar minimalis kayak kamarku.
- ⑭ Sani : Wah, boleh banget. Tapi, jangan buang semua isi kamarku, ya? Hahaha



우리말 풀이

- ① 미까 : 와... 사니 네 방 진짜 깔끔하다.
- ② 사니 :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하하하. 나 좀 물건 딱딱 맞춰서 두고 그러는 거 귀찮아하거든. 아무데나 두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내 방 청소하느라 바빴잖아.
- ③ 미까 : 하하. 똑같네 우리. 나도 방이 너무 난장판이어서 아빠한테 혼나는 게 일이었지.
- ④ 사니 : 미까, 나 요새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 좀 시도해 볼까 싶어. 얼마 전에 이사했을 때 있잖아, 내가 안 쓰고 보관만 해 두고 있는 물건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안 입는 옷은 좀 버리고, 다른 사람도 주고 그랬어.
- ⑤ 미까 : 어, 그렇게 하는 게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지.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대유행했었잖아. 또 다른 팁은, 물건을 살 때,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물건 하나를 살 때 마다, 하나를 버려야 해.
- ⑥ 사니 : 아.... 그거 참 괜찮은 팁이다.
- ⑦ 미까 : 처음엔 뭘 버리고 뭘 그냥 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쉬워질 거야.
- ⑧ 사니 : 응, 그렇게 실천해 볼게.
- ⑨ 미까 : 응, 하나씩 하나씩 해. 모든 일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전에 나도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서 물건을 살 때가 있었어. 사놓고 쓰지도 않았던 거 보면.
- ⑩ 사니 :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사치부리고, 단지 체면 때문에 물건을 사고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 ⑪ 미까 : 응, 내 생각엔 사실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 ⑫ 사니 : 너 미니멀리스트 다 됐다 야. 하하하
- ⑬ 미까 : 에이.. 아니야... 하하. 내가 다른 방 치우는 거 좀 도와줄까? 내 방처럼 미니멀 하게 말야.
- ⑭ 사니 : 되고 말고~~. 근데 방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진 말고, 응? 하하하

[돌보기]

suka ‘좋아하다’ 라는 뜻 외에도, (보통 부정적 뉘앙스로)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주~ 하다, (상황이) 자주 어떻게 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Dia suka telat. 그 사람은 자주 늦는 편이에요.

Pancoran memang suka macet. 뽕조란은 정말 잘 막혀요.

Anakku masih belum bisa jalan lancar. Dia masih suka jatuh.

우리 아이는 아직 잘 못 걸어요. 잘 넘어져요.

pas 본문에 나왔던 ‘pas’ 는 아래 1번 예문에서처럼 ‘바로 그 때’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 ① 제가 거기 있었을 때는(바로 그때는) 그 분은 아직 안 오셨었어요.

Pas saya di sana, beliau belum datang.

(쇼핑몰 로비 밖을 나갔는데 때마침 빈 택시가 들어오거나, 횡단보도 앞까지 도착하니 때마침 신호가 바뀐다면) Pas banget! 타이밍이 완벽하네.

- ②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맞는 (tidak lebih, tidak kurang)

(택시에서 손님이 옷돈을 얹어 주는 상황)

기사 : Uang pas saja. 딱 맞게 주세요. (나 잔돈 없음....)

승객 : Kembaliannya enggak usah, Pak. 잔돈은 괜찮아요.

(음식 간이)

Pas banget. 딱 맞아.

- ③ 험렁하지도 않고 딱 끼지도 않는, 딱 맞는 (tidak longgar, tidak sempit)

호호 반지가 꼭 들어 가네~ Cincin ini pas buat aku.

- ④ 사업하기 전에는(사업가가 되기 전에는) 사는 게 빠듯했죠.

Sebelum jadi pengusaha, hidup saya pas-pasan. [빠스빠산]

‘hidup pas-pasan’ ‘경제적인 여유 없이 빠듯하게 살다 ‘



hedon hedonisme [헤도니즘] ‘쾌락주의’를 줄여서 ‘hedon [헤돈]’이라고 하는데, ‘사치하는 습관’을 뜻해요.

‘hedon’은 boros(낭비하며 쓰다)와 바꿀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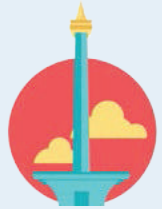
Kamu jangan boros. (휴지를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엄마가 하는 말) 아껴 써라 애!

바하사 써먹기

- 와이고~ 집이 난장판이네. (친한 사람에게만 쓰세요 호호)

Waduh.....rumahnya kayak kapal pecah.

난파된 배처럼 집이 어지럽혀져 있는



- 요즘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Sekarang gaya hidup minimalis itu jadi ngetren.

영어 단어 트렌드(trend)

1음절 어근에는 접두사를 menge- (생활회화nge-)를 붙여요.

- ① 요즘 이런 앞머리가 유행이에요.

Poni seperti ini ngetren sekarang.

- ② 요즘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에요.

Cara berpakaian seperti ini jadi ngetren sekarang.

- 하다 보니 익숙해 졌어요.

Lama-lama jadi terbiasa.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 때가 되니)

- ① 차차 익숙해 질 거야.

Lama-lama akan jadi terbiasa.

- ②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는 지겨워.

Awalnya seru, tapi lama-lama jadi bosan. (시간이 흐르고 나니, 결국에는....)

-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워요.

Gampang-gampang susah.

- ①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더 어렵네요)

Tidak segampang yang saya pikir.

(Lebih susah daripada yang saya pikir)

- ②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Lebih gampang daripada yang saya pikir.



2019 설날체험행사 통해 따뜻한 명절의 온정 나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원장 천영평) 은 2019.02.02. (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주재국 국민과 교민들과 함께 “2019 설날 체험행사” 를 즐기며 우리 교유 명절인 설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 대한 문화원장의 설 인사로 시작한 행사는 △설날 소개, △차례상 설명, △가래떡 썰기, △떡국 만들기, △설날 음식 체험 및 한복 체험, △설날 민속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세배 체험 시간 >>

행사에서는 한국의 명절인 설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전통 예절을 몸에 익히고자 올바르게 한복 입는 법 및 영상을 통한 세배 배우기 체험 시간을 가졌으며, 참가자들은 남녀 세배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새로워했으나 이내 영상을 보며 익숙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례상에 대한 설명시간 >>

차례상에 대한 설명시간에는 차례가 가지는 의미 및 각 차례 음식의 배치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참가자들이 떡국과 명절 음식을 다함께 나누어 먹으며 가족들이 모두 모인 즐거운 설날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대왕옷놀이를 하고있는 참가자들 >>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대왕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승자에게는 설날 복을 가득 담은 복주머니를 전달하며 따뜻한 설날 행사를 같이 나누었다.

떡국 및 한국음식 시식시간 >>

문화원장은 행사를 마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재국 국민들과 한국교민이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이해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명절을 계기로 주재국 국민에게는 명절의 의미가 우리 국민에 가지는 의미를 알리고 한국교민에게는 고국에 있는 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공:한국문화원)

MRT JAKARTA



(학생기자 JIS 한영진)



교통체증은 자카르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1분 거리를 30분 걸려서 가게 하고 30분 거리를 몇 시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주하는 많은 사람에게 항상 이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 문제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즉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교통체증은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문제없이 나라가 득을 보며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00년대부터 나라에 중요한 경제적인 발전을 시작할 때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중심지인 자카르타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중 12위에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다. 날짜에 따라 짝수 홀수 전용도로를 만들고, 특정한 시간에는 어떤 도로들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며,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도로를 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는 교통체증이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를 줄이는 현상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나라의 다른 문제들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 문제

를 해결하여 경제속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해결 방안들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혁신적이고 교통체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시행하게 하였다. 최근 몇 달 전부터 주목된 MRT가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다. MRT는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같은 것인데, 정부에서 이를 해결 방안으로 삼은 이유는 도로 정책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은 발달한 교통수단들이 있다. 발달된 교통수단들이 도로의 이동수단인 차 사용을 줄였기에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 이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자카르타에는 MRT로 인하여 철도 공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 27일인 오늘을 기반으로 MRT 공사는 거의 다 완성됐고, 공사의 총책임자인 William Sabandar은 3월 12일에 첫 운행 시행을 한다고 25일 날에 발표했다. 첫 운행 시행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 3월 5일 날에 신청할 수 있게 신청사무소를 연다고 하였다. 뽀뽀 시민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이 혁신적인 방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정부는 이것이 좋은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교통체증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우선적인 문제이고 정부는 이를 한시 빨리 해결하여 경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Free ride: Public can try MRT on March 12

기자: Sausan Atika

출판사: The Jakarta Post



“기업시민, 무엇을 할 것인가?”

제 3부 『함께 걷자! INDONESIA』

글: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이순형사무총장

프롤로그 : 드디어 육지에 발을 내딛다.

지난 10월 31일, 전날 밤부터 정박할 차레를 기다리며 물 위에 떠 있다가 다음 날 정오쯤이 되어 서야 술라웨시 동갈라 동쪽 Pantoloan 항구에 발을 디뎠다. 여기 저기 걸리는 몸을 펼 새도 없이 눈에 들어오는 부두의 풍경은 황량 그 자체였다. 내가 내렸던 부두 옆에는 페리호 부두였는데, 선착장 중간까지 쓰러진 컨테이너가 걸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부두인데도 차울 사람도 없을 만큼 그곳은 아직도 일손도, 물자도 부족한 결핍의 시간이 흐르는 듯 했다. 이미 부두의 크레인들도 다 쓰러져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다. 우리 배에 하역용 크레인이 없었다면 하역하는 데도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부두 사정을 모르는 채 일반적인 하역 시간을 계산해 배를 빌렸다면, 용선료 때문에라도 합판을 마구잡이로 내리다 파손되거나, 아니면 크레인이 없으니 하역없이 느리게 물건을 내리다 굶은 날씨에 비라도 맞았을 게 분명해 보였다. 부두의 상태를 보고 나는 ‘우리 배에 직접 합판을 실어 전달하기로 계획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길란 쉬운 일이 아님을 매번 느낀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새로운 경향이랄까,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CSV(Creating Shared Value), 직역하자면 ‘공유가치 창출’이다. 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경영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이윤창출과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이윤창출은 단순히 매출과 순이익 차원이 아니다.

기업의 신용도 상승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이윤을 말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공헌이라 함은 회사의 남는 자원이나 이익을 단순히 환원하는 단편적인 기부와 활동 차원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CSV는 기업의 경영 핵심역량을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해 기업경영활동의 한 부분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CSV의 성공적인 사례로 스위스의 한 식품 기업의 사례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산골짜기에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커피 원두 생산지가 있다. 그런데도 이곳 농부들의 생산량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곳에서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기업은 실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악순환의 원인을 발견했다. 농부들의 소득이 커피를 수확해 판 날부터 다음 수확 때까지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돈이 떨어지면 커피 농사를 중단하거나 다음 수확을 위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둬들여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좋은 원두가 생산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때 기업에서 제시한 것은 “책임 농업” 프로젝트다. 농부들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봄에는 채소를 심고, 당나귀나 말 등 가축을 기르며 수익을 다변화했다. 그들이 키운 당나귀와 말은 농부들이 더 이상 중간상에게 커피 과육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 커피 원두를 직접 싣고 처리장으로 올 수 있어 농부들에게 기존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책임 농업” 프로젝트를 전개했던 기업은 이곳에 현대식 장비를 들여와 커피 과육을 벗겨내게 해 기존에



비해 물을 덜 사용하면서 벗겨진 과육을 퇴비로 사용하게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품질 좋은 원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민 소득은 크게 증가시켰다. 어쩌면 이 기업이 다른 대체 생산지를 찾아 나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 기업은 생산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했다. 더 나아가 그 마을이 이 기업의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또한 방지하게 했다. 기업과 생산기지의 상생이 조화롭게 이뤄진 사례다. 이 기업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꽤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실험들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우리 계열사들의 인근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했던 것이다.

파푸아 주 보벤디굴 군 아시끼 지역엔 지역 사회를 위한 350헥타르 규모의 고무 농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그곳의 수백 명 주민이 생산을 하면 우리 회사가 다시 그 원료를 사주는 형식이다. 농사에 서툴러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경우엔 농업 전문가를 투입해 농법을 가르쳐주고, 현지에 최적화된 비료도 공급해주는 등 그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농업환경이 좋지 않은 깔리만탄 주 빵갈란분 지역, 마을을 끼고 도는 강이 있어 그곳에 양어장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급자족하고 나머지 일부를 우리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시험과정을 거쳐 우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축산 농가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소, 돼지, 닭 등 지역 환경에 맞는 축산 업종을 설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안정이 코린도 이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라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쉬운 것 아닌가!’

어쩌면 그게 훨씬 더 편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을 무한대로 채용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부국(富國)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원과 넓은 국토, 많은 인구까지... 이런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도네시아는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까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가보면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첫 시작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에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게 돕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구의 고른 분포를 위해 이민정책을 썼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해결하지 못했다. 영토는 넓어도 각기 섬으로 떨어져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먹여 살릴 산업 기반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계열사가 있는 지역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직장을 가진 주민들과 특정한 직업과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주민들은 성실한 노동의 의미, 가족 부양의 의무,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 투자 등에서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랫동안 살아 왔던 터전에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인도네시아의 공유 가치 창출의 시작이라고 본다. 우리가 쉬운 길을 두고 지역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기업을 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인 기업, 외국 기업이 아닌 인도네시아 기업이다. 한 사람의 성숙한 시민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듯, 기업 시민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견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이윤창출이지만, 그 이윤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가치와 일치하고 상승 작용을 할 때 이윤창출의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초, 우리 그룹은 “코린도 장학재단”에서 “코린도 사회 공헌재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향후 우리의 사회공헌 공헌 프로그램의 방향을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닦아놓은 길은 우리만을 위한 것도, 인도네시아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길 바란다라는 의미다.



에필로그

내가 술라웨시 동갈라에서 돌아온 건 지난 11월 2일.

아직도 추수가 끝난 평야처럼 보였던 그곳이 생각난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알게 된 것은 지반 액상화 현상 때문에 지표 위의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키고 난 후 지반 자체가 내려앉았던 공포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 규모도 정확히 산출할 수 없게 사라져버린 그곳엔 얼마 전까지 누군가의 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집에서 꿈꾸었던 희망도 있었을 것이다.

술라웨시는 지금 새로운 가치보다 잃어버린 기초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가 싼고 간 합판은 가로x세로x높이 각 1미터의 정육면체를 줄지어 놓으면 1.1킬로미터에 달하는 양이다.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틀이면 다 하역할 수 있는 양이지만, 그곳에서는 하역한 지 이틀째에도 30%가 남아 있었다.

내가 떠나오던 날까지 합판 하역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쯤 그것이 기초가 되어 그들의 삶이 안정 되는데 쓰이고 있을까?

배를 타고 그곳에 가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또 우리는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연세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2명의 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한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지난 1월 29일 인도네시아 대학교(UI)에서 2019년 코린도-연세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대학생 2명에게 코린도 사회공헌 재단이 유학 생활 자금 지원을 했다.

올해 선발된 두 명은 모두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어 문화 연구 문화 연구 프로그램의 문화학부 학생으로 아나스타샤 한나 푸트리(Anastasia Hannas Putri)와 에들린 존(Edlyn Jhon)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연세대학교에서 10개월간 공부하는 동안 두 학생은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1명씩 선발해 온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은 올해 특히 2명으로 증원됐다.

PT. Prime Freight Indonesia가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1명 분의 생활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번 지원은 1명을 증원했다는 의의도 있지만, 그 동안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참여의지는 많았으나 과도한 비용에 대한 부담, 혹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도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토지법(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주체(자연인,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소유권, 경작권(사업권), 건축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토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해하기가 좀 혼란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농장, 사무실, 점포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동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 33조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화란의 식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저린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적으로 하고,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화란 식민 통치 정부에서 제정했으며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의 토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러서 기존 식민통치자의 토지법을 폐기시키고 토지에 관한 1960년 법률 제5호(“토지기본법”)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식민통치자가 만든 토지법과 1960년 토지기본법의 차이는, 식민통치자의 토지법은 해당 토지의 지표 및 지하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

하고 있으나 1960년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지표권만 인정하고 지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60년 전에 제정한 현행 토지 기준법이 변화된 사회 및 경제 환경에 맞게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어, 현재 토지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우리 한인동포들의 관심사인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권 부여가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토지기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다.

-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용도,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1.2.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tanahan)는 지방 자치 정부 소속이 아니고 중앙정부 토지원

(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장관(*현 Sofyan Djalil 박사)이며, BPN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조림, 농장, 광산 개발,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 상의 주민 공동소유권(Hak Ulayat)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000 m²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000 m² 이상 보유가 불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자카르타 주지사의 특별허가를 얻어야 5,000 m²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임시 거주 허가서/KITAS 이상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회사, 단체,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국제기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경작권(Hak Guna Usaha/HGU),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사용권(Hak Pakai/HP), 개발권(Hak Eksploitasi/HE) 등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기념비

러시아 연해주 남단의 크라스키노(연추)에는 안중근 의사가 주도하여 결성한 세칭 단지동맹(정식명칭 ‘동의단지회’)을 기리는 비가 서 있다.

2001년 10월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세운 것으로, 그동안 두 번 이전한 끝에 현재 자리에 서게 되었다.

글.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단지동맹 기념비

이 비가 최초로 건립된 곳은 연추지방의 여러 마을 가운데 하나인 추카노보 입구였다. 그 뒤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현지 진출기업인 남양알로에와 협의하여 부근의 농장 입구로 1차 이전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그곳을 출입금지구역으로 편입하고 한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게 되자, 2011년 8월 재차 현재 위치로 이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기념비가 선 자리는 크라스키노(연추)에서 2~3km 떨어진 완만한 구릉지의 대로 부근으로, 두만강변 국경도시 하산으로 내려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1909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결사 동지 김기룡, 백규삼, 황병길, 조용순, 강순기, 강창두,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춘, 김천화 등 12인은 이곳 크라스키노(연추 하리) 마을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단지동맹하다. 이들은 태극기를 펼쳐 놓고 각기 왼손 무명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혈로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였다.

- 1 안중근 의사의 수인(手印). 안 의사는 동지 11인과 함께 동의 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고 왼손 넷째 손가락 한 마디를 끊어 결의를 다졌다.
- 2 단지동맹비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투사 12명이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왼손 무명지를 잘라 맹세했던 장소다.

독립운동사학계의 태두인 윤병석(尹炳奭) 인하대 명예 교수가 지은 비문의 전문이다. 단지동맹에 대해 압축 적으로 기술한 이 글 속에는 결성 시기, 12명의 맹원, 결성 장소, 역사적 의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해주 의병장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두에서 대한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안중근은 신분이 ‘의병’ 이었다. 곧 1907년 가을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한 이래 의거를 결행할 때까지 만 2년 동안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편성한 3, 4천 명 규모의 항일의병을 이끈 대표적인 의병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1908년 7월, 1천여명 규모의 연해주 의병이 두만강을 건너 관북지방으로 진공하여 일제 군경을 상대로 치열한 항일전을 전개할 때 도영장(都營將) 전제익(全濟益) 아래 ‘우영장(右營將)’ 으로서 휘하 부대원을 이끌고 참전, 분투하였다.

한 달 반 동안 관북 각지를 전전하면서 혈투를 벌이며 함북 회령 남쪽의 영산(靈山)까지 깊숙이 진격했지만, 그곳에서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참패 끝에 근거지 연추로 귀환하였다. 안 의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세가 꺾여 어찌할 수가 없는 형세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천명(天命)’ 이었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옛날 미국 독립의 주인공인 워싱턴이 7, 8년 동안 풍진 속에서 수많은 곤란과 고초를 어찌 능히 참고 견디었던고. 참으로 만고에 둘도 없는 영걸이로다. 내가 만일 뒷날에 일을 성취하면 반드시 미국으로 가서, 특히 워싱턴을 위해서 추상하고 숭배하고 기념하며 뜻을 같이 하리라.” 고 하여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미국 독립의 영웅이 된 워싱턴을 우러러 사모하였던 이유도 자신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동질감을 느낀 까닭이라 할 것이다.



단지동맹 결성

대규모 국내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난 후, 안 의사는 3개월 동안 연해주 각지의 한인마을을 순방하였다. 동쪽의 수청(수찬), 북쪽의 블라고슬로벤노예에 이르기까지 각지를 전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자 하였다. 한인사회에서 항일(의병)의 열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위축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병 유세를 결행한 셈이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싸늘한 반응을 감지한 안 의사는 이를 반전시켜 인심단결(人心團結) 을 도모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자임하였다.



3

3 안중근 단지 혈서 엽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체포되자 미주 한인들이 안 의사의 재판비용을 후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기념관)



4

4 의병으로 구국을 도모하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는 1908년 연해주의를병을 이끌고 국내진입 작전을 전개했다.

단지 동맹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안 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안 의사가 주도한 소수정예의 인물들에 의해 극비리에 결성된 단체인 만큼, 단지동맹의 사실(史實)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밝혀진 단지동맹의 실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중근 의사가 동지 11인과 함께 단지동맹을 결성한 시기는 1909년 음력 2월 7일, 곧 양력 2월 26일이며, 그 결성 장소로 알려진 ‘하리’는 연추에서 중국 훈춘(琿春)으로 통하는 가도상에 있는 5~6호의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맹원 11인의 명단은 하얼빈의거 후 안 의사의 진술 가운데 수차에 걸쳐 나오지만, 동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저하게 실명(實名)을 숨겼기 때문에 실제 명단을 확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앞의 비문에 제시된 12명 명단은 이처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자료상의 성명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안중근이 진술한 12명의 명단은 맹주 안중근을 비롯하여 김기룡(金基龍), 강기순(姜起順), 정원식(鄭元柱), 박봉석(朴鳳錫), 유치홍(柳致弘), 조순응(曹順應), 황길병(黃吉秉), 백남규(白南奎), 김백춘(金伯春), 김천화(金天化), 강두찬(姜斗瓚) 등이다. 이 명단이 안중근이 실제로 단지한 회원의 실명을 염두에 두고 임의로 지어낸 가명이라고 한다면, 여러

정황으로 실명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김기룡(金起龍)은 이미 실명이 드러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나머지 명단은 이름 두 자가 뒤집힌 경우와 성이 바뀐 경우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명단은 강기순, 조순웅, 황길병, 백남규, 강두찬 등으로 각각 강순기(姜舜璣), 조응순(趙應順), 황병길(黃炳吉), 백규삼(白圭三), 강창두(姜昌斗) 등을 지칭하는 가명인 것 같다. 이들은 연해주병의 주요 인물이거나 안 의사의 주변에 있던 동지들로 파악된다. 그리고 김천화는 안중근이 국내진공 작전 때 영산 전투 이후 함께 연주로 귀환했던 갈화천(葛化天)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타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춘 등 4인의 실명은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인심단결의 표상, 단지(斷指)

안 의사는 11명의 동지와 함께 왼손 무명지 끝마디를 자르고 태극기 위에다 ‘대한독립(大韓獨立)’ 네 글자 혈서를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한 뒤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연해주 한인 마을 유세를 마치고 연주로 돌아와 그동안 자신이 역설한 단결과 화합의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나아가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는 데 헌신한다는 근거로 보이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른 것이다. 곧 단지동맹은 의열투쟁을 결행하겠다는 의지의 선(先) 목적을 앞세워 결성한 것이 아니라, 조국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굳은 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회맹 때 결행한 단지는 곧 나라에 몸을 바치는 증거인 동시에 인심단결의 표상(表象)이라 할 수 있다.

단지동맹의 결성은 안 의사가 결행한 하얼빈의거의 배경으로는 언급될 수 있겠지만, 의거를 결행한 주체로서 직접 연결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사실(史實)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하얼빈의거에 참여한 안 의사의 동료 가운데 맹원이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맹에서 표방한 인심단결을 통한 독립운동의 희생적 실천의식은 곧 하얼빈의거를 결행할 수 있게 한 저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안 의사는 자신이 결행한 하얼빈의거를 한 민족의 전력 투입되다시피 한 구국의 성전 의병전쟁, 곧 독립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얼빈의거에 대해 “나 일개의 생각뿐만 아니라 곧 한국 2천여 만 동포의 대표로 결행한 것”이라는 안 의사의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안중근의병부대 진격 경로

2019년 제3회 적도문학상 공모

1. 공모부문 : 시, 수필, 단편소설, 동화
2. 주 제 :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외국인 = 한국 이야기
3. 공모 대상 : 성인 및 만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대학생 / 외국인
4. 공모 방법 : 자유시 2편 이상 / 수필 2편
(수필 1편분량 A4 - 11포인트 2쪽내외)
단편소설 및 동화: 1편이상
(1편분량 A4 - 11포인트 5쪽내외)
5. 접수 기간 : 2019년 1월 25일~3월 20일(수)
발표: 4월 15일 *시상식은 4/27일(토)예정
6. 제출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이메일 : spring609@naver.com
문의 : +62-811-805-017 / +62-811-969-1190
+62-812-234-7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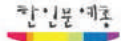
시상 내역 / 성인 부문		시상 내역 / 학생 및 청소년 부문	
대 상 (1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상금 US\$ 1,000	최우수상 (1명) (청소년 부문)	췌 아세안 대상상 (외국인) -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2명)	췌인니한국대사상 / 재인니한인회장상 - 상장 및 부상	우 수 상 (4명)	민주평통상 / 재인니 한인문예총회장상 한인포스트상 / 글로벌기업문학상 - 상장 및 부상
우 수 상 (4명)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 글로벌기업문학상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상 - 상장 및 부상	특 별 상 (1명)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특 별 상 (1명)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장 려 상 (3명)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가 작 (3명)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 대상(적도문학상)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성인 당선자도 한국문단 등단기회 부여
- 당선작은 <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되며 수상자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으로 가입됨
- 적도문학상 학생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적도문학상 수상 증명서 교부

주
의
사
항

1. 응모작은 지면이나 사이버 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선이 취소됨
3. 응모작의 앞부분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 재인니한인회 /  / HanInPost
한인포스트

HANNAH PRESS / PT. CIPTA ORION METAL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 2019년 제3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안내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는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에 거주하는 성인 및 만15세 이상 학생과 한국어학과를 전공한 인니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3회 적도문학상을 개최합니다.

♣ 우리 삶의 이야기가 곧 문학이 됩니다.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서미숙 회장<적도의 노래>시집 출판기념회

타국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적도에서 부르는 인생의 노래



글 : 이영미 수필가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지난 1월 26일(토) 오후 4시 자카르타 Korea Center 한인문화회관에서 한국문협 인니지부 서미숙회장의 첫 시집 <적도의 노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영미 작가의 사회로 시작된 <적도의 노래>출판기념회는 박미례 한인회수석부회장, CJ 인도네시아 손용 대표, 강희중 대한체육회 회장, 배연자 자유총연맹 회장, 한인포스트 정선 대표, 연대 동문화 부인들, 양수려前아나운서, 박시은 아나운서, 가나레스토랑 김미영 대표 등 서미숙작가의 시집 발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내빈 및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적도의 노래> 저자와의 대담 이영미 작가와의 (북토크)에서 서미숙 작가는 수필가로서 시집 집필 계기와 자신만의 시작詩作법을 공개하며 시(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적도의 나라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서미숙 작가는 타국에서 살아온 본질적인 외로움과 고

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성 있는 언어로 담아낸 첫 시집 <적도의 노래>를 탄생시켰다.

‘적도의 노래’에 수록된 시 ‘수카르노 하타 공향’ ‘두 나라’ ‘인니의 가을’ ‘갬보자 아래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카르타’ 등의 시편에서 제2의 모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목련’ ‘마음에게’ ‘고백’ ‘인생의 법칙’ ‘아름다운 노을이

되라 한다’ ‘혼자 밥을 먹다가’ ‘장례식장에서’ ‘바람에게’ 등의 시에서는 타국에서 살아온 서글픈 시간들을 부인하지 않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듯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생하는 긍정적 삶의 자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박미례 한인회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문학만큼 순수한 것은 없다”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경계인의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서미숙 시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응원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북 토크’를 비롯해 내빈들과 문협 회원들의 시 낭송으로 참석자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출판 기념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주말 오후에 열린 작은 문학 행사로서 시와 음악과 함께 했던 따뜻하고 감동 넘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미숙 시인은 1992년 계간 『아시아문학』 해외 문학 공모전에서 산문 ‘날개 짓’으로 대상을 수상한 후, 2008년 격월간 『서정문학』에 수필 부문으로, 2012년 월간 『문예사조』에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추억으로의 여행』, 수필집 『적도에서의 산책』 등을 펴내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으로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과 어떤 작품으로 따뜻하게 만날 수 있을지 서미숙 시인의 새로운 작품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에서 『드라마 OST로 배우는 K-POP 행사』 열어

한국 드라마와 K-POP이 동남아시아의 신한류 열풍에 힘입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현지인들의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 수요로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을 방문하는 학생 또한 나날이 늘고 있다. 이에 KSIC는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K-POP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이러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드라마 OST로 배우는 K-POP 행사를 마련하였다. 행사는 지난 2월 6일(수)에 KSIC 문화체험실에서 열렸으며, 수강생 및 일반인 30명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KSIC소속 세종학당재단 파견 최안나 교원은 먼저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K-POP가수와 노래를 묻은 후, ‘일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짧은 동영상 을 통해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K-POP 스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해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K-POP 스타들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피, 땀, 눈물을 이해하는 듯 끄덕이며 강의를 경청하였다.



이어 한류를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세 시대로 구분하여 그 흐름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 현재의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바라보던 한류 문화에 대해 종적인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늘 익숙하게 보던 가수가 아닌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퍼포먼스가 나오자 신기해 하며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학생들 대부분은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이후에 태어났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원조를 알게 된 셈이었다. 90년대에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옛날 가요가 현대의 가수를 통해 다시 재창되는 리메이크 곡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은 ‘아이유&김창완-너의 의미’를 소개하며 신구의 만남으로 재탄생한 K-POP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학생들은 흥미있게 음악을 감상하며 행사에서 배운 ‘응답하라 1988 OST’에 대해 더욱 기대를 높였다.

전반부의 K-POP 강의를 들은 후 학생들은 ‘응답하라 1988 OST - 보라빛 향기(노래 와블/원곡 강수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이 준비한 유인물로 가사에 나오는 단어를 배운 후, 교원을 따라 천천히 가사를 읽으며 발음을 익혔다. 그후 노래방 반주 동영상을 보며 멜로디를 익히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사람들 못지않게 흥이 많아 노래를 금방 익혀 따라 부르며 흥겨워 하는 모습이였다.



노래를 배운 후 조별 노래 경연 대회를 진행하였다. 노래 경연 대회를 위해 각 조별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이 최신 K-POP CD를 보여주며 1등 상품이라고 소개하자 학생들은 열화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꼭 1등을 하겠다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춤을 만들어 연습하는 열의를 보였다. 노래 경연이 시작되자 각 조는 준비한 노래와 춤을 마음껏 선보였다. 그중 돌림노래를 선보여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팀이 1등을 차지하여 K-POP CD (레드벨벳, 엑소, 태연, BTS, 워너원, 태민의 앨범)를 상품으로 받았다. 나머지 팀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학생들이 모두 함께 ‘보라빛 향기’를 부르고 행사의 막을 내렸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가사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생겼다”고 말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노래를 흥얼거렸고, 한 학생은 “집에 가서 응답하라 1988을 다시 봐야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1등 상으로 K-POP CD를 받은 학생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기쁜 모습을 감추지 못하였다. 행사는 KSIC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ksic.indonesia)에 라이브로 방송되어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도 행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드라마 OST로 배우는 K-POP 행사는 학생들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류의 변천 및 리메이크 곡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KSIC는 앞으로도 한류 문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어 학습을 고무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INTERVIEW
DI JALAN

부부 과일상 NN (62세)

수하르토 정권 말기 20년 군생활 끝내고 일반 사회로 나왔어요. 뭘 할까 생각하다 시작한게 과일상인데 벌써 18년째 되었고 뽕조각에선 4년 되었네요.

이른 새벽 과일 도매상서 제철 과일을 받아와 모두 팔아야 귀찮습니다.

하루 몸세 3~4백만 인데 우리 식구들 그럭저럭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족은 큰아들은 취직했고 둘째 딸은 결혼해 2손녀에 망내가 12살로 큰애랑 차이가 많은데 이빠요 ㅎㅎ

지금 생활이 군에 있을 때 보다 수입은 적지만 너무 편하고 즐겁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잘 자라주고... 소원이라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 부부는 신앙 생활에 더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부인 : 작년 연말 가족 모두 처음으로 발리를 여행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남편만 일하느라 못가서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요. 30살인데 지금 미국 항공사에 항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이 제법 아니 엄청 짭짤하답니다. 생각만 해도 대견해요. 호호호~

<편집국>

2019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기준: 납부 일순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24	임진섭	600,000	2017 ~ 2018
25	승진아	300,000	
26	장윤하	600,000	
27	석웅치	300,000	
28	송재선	300,000	
29	김일태	300,000	
30	김재윤	300,000	
31	서준형	600,000	2017 ~ 2018
32	류근수	300,000	
33	이선형	300,000	
34	오은선	300,000	

2019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2019.1.31. ~ 2.27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4	장윤하 이사	PT. HARINDO		1,000	
5	석웅치 자문위원	PT. DAYUP INDO	14,000,000		
6	김일태 이사	PT. OROM	14,000,000		
7	김재윤 이사	PT. KUNYOUNG INDONESIA JAYA	14,000,000		
8	서준형 이사	PT. TACHYON INDO	28,500,000		2017 ~ 2018
	총 금액		98,579,000	2,00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 제 전 화.....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문의.....021)57986555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 **急**한데 .. 유능한 人材 어디서 찾나?

✓ **힘**드네 .. 쓸만한 사람 그렇게 없나?

✓ **費**用 .. 들어도 좋은 직원 없을까?

Recruitment Service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 (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ur Campuse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South Jakarta 12430
T: +6221 7590 885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 II No. 11,
Sunrise Garden West Jakarta 11520
T: +6221 581 2228

OPEN HOUSE
Saturday, 13 April 2019
09.00pm - 12.00am

www.ichthusschool.com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족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불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	--------------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쑤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하숙

경복궁 하숙(리쑤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쑤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마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4960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파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안색션 대표: 김상태, 김혜정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2. 2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윤 재 웅	0813-1921-5720
		사무차장	윤 병 결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1-332-4001
		수석부회장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조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BE
THE FIRST
MOVER**



KMK GROUP